

9/27/26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8 장 1-14 절

천국에서 큰 사람(막 9:33-37, 42-48; 눅 9:46-48; 15:3-7; 17:1-2)

-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 11 (없음)
- 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품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진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승천한 후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삼일 후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었습니다.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낙시하여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있는 한 세겔로 당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도록 한 때입니다.

성전세는 매년 아달월(태양력 2-3 월) 15 일경에 납부를 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유월절, 니산월 14 일, 태양력 3-4 월)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누가 크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가버나움 집에 도착한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토론한 내용에 대해 물으시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9: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막 9: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눅 9:46)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눅 9: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왜 갑자기 노상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의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자리 다툼에 불을 지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면서 당신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낸다고 말씀하신 것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곳을 정복하고 왕이 되실 것이며 그러면 자신들은 그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다른 제자들 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워 이런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지금처럼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수를 셀 때도 제외시켰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더니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는 착하고 어른은 악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본질적으로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부모만을 의지하는 겸손함,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함, 솔직함 등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온통 관심이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을 지닌 자, 당신의 가르침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쓸데없는 논쟁을 단번에 종식시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작은 자'는 단지 어린 아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일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도 믿는 자들은 당신의 백성이니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근본부터 잘라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자들이니 없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없음)

11 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있는 사본들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있고, 이류 사본으로 분류되는 사본에만 11 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같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13 군데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고, 사본만 남아있으며, 남아있는 사본에는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같이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에는 빠져있고 이류로 분류되는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라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수종하는 천사를 할당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일 찾으면’이라는 말씀 속에서 길을 잃은 양 중 찾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자신을 찾는 주인의 음성을 외면하고 끝끝내 제 고집대로 행한다면 주인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주인은 끝까지 그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길 잃은 양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하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 안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위치'와 '권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높아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는데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낮아진 마음으로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고, 힘 있는 자를 우대하며, 작고 연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
십니다.

하나님에게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위대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다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한 영혼이 천하 보다도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 주고 세워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